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나 여러분도 우선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침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침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 내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야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한 말 되라고 한 말 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에도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아니 삼천 년 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방편으로 하셨으니,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다 보아 된다 하는 경도 있을 거고, 또는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라 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틀 다 잃고 나면 계율을 지키라고 말을 안 해도 법하지 않으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게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계(五戒)도 못 지켜요. 계율이라는 거에 걸려서 말이죠. 나는 오계(五戒)를 설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때에 따라서 부득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살생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 하다가 해를 끼치고 한 마리를 죽였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살, 내 생명, 내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도리를 알아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팬히 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죽여서만 죽이는 게 아닌 일이 또 있죠. 남의 식구들을 똥똥 짓밟아 버리는 거, 하나 죽이면 식구가 전부 못 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부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는 것이 법화경이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집할 때 약간 추려서 내놓는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을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지(地)·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천·지·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천 연화장불(大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끌리고 저러 끌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끌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 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 그것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돼.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립하는 데 걸음 떼어놓으시는데 한 찰나에 떼어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떼어놓는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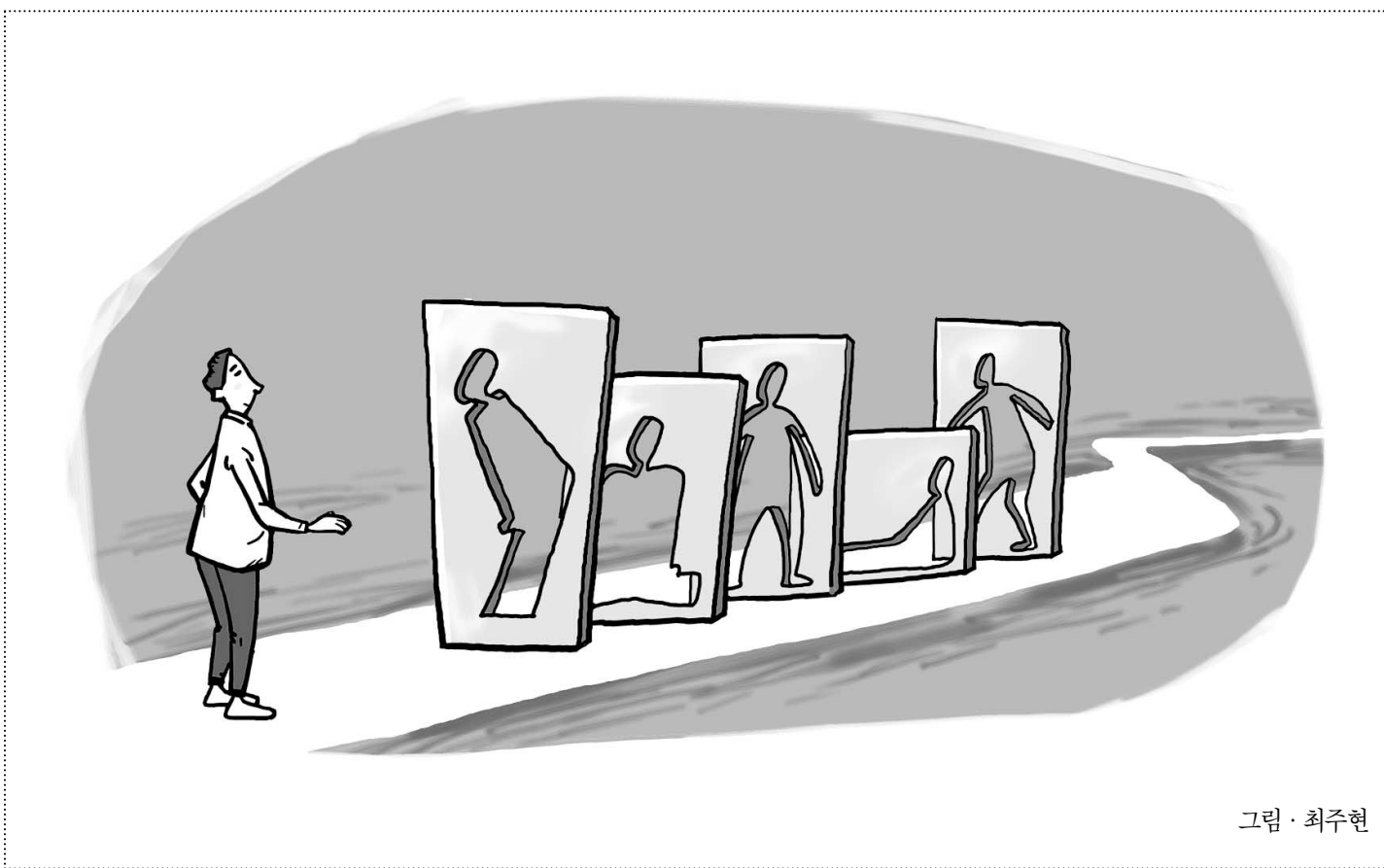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의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입니다.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요,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 원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경토를 왕래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떠한 악의 덩어리가, 마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데 다니면서 사

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때 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내가 된다 말입니다. 업식으로 몸종이가 뭉쳐졌다고 그랬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무 개, 백 개, 천 개, 백억으로 돼 가지고서 누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살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 가지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걸 참 어떻게 되어서 애길 헤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생활이 그대로 천체심성과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물질로

써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와 있었어도 못 보는 걸 어떻게 하니까? 전자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가 연구하는 데 와 있었어도 몰라. 주옥 있었어도 몰라. 그럼 그 노릇은 어떻게 하니까? 돌이 아닌 까닭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줄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참,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의학 박사가 말합니다. 죽었는데, 참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무척 애썼는데 후배들은 도대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어떤 남자가 그

런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하니까 그냥 그 박사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남자는 그 박사가 전자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바로 태어난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타에서 들어와도 자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의 선배가 죽어서 영령으로서 나한테 침입을 했어도 선의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악의적으로 했던 선의적으로 했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걸로 삼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주 거기에다가 딱 놓고 '이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한다면 그게 자의가 되거든요.

이것을 제함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악마라도 다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면 천지가 편안해. 천지가 다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해. 모든 사생(四生)이 다 편안하고, 사람 될률이 100% 더 많이 되고, 그 몫을 인연들이 다 없애고 그렇게 뭉쳐서 불국토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국토(佛國土)가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여러분이 참, 꿰뚫어서 자기를 자기가 먼저 알고 또는 남을 알고 상대를 알고 함으로써 돌이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꽃이 피게 되고, 만 가지 열매가 맺고, 만 가지 맛을 아니 이것이 불국토다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彌壽)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거든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 밖엔 없으니까요.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집값이일 뿐이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다면 나도 거기 휩쓸려 있고,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생은 부처가 스승이고, 부처는 증생들이 스승이예요. 그래서 평등진리죠. 따지고 본다면 어떠한 회사에 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 안 해주면 사장이 어딴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어요. 이것은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귀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논 하나 깜짝 안 하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쳇말로 이라는 거지, '깨달을 겁니다' 이라야 되는데 '발전할 겁니다'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 이게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나를 꼭 만나야만 하는 줄 아시지만 여기 스님네들한테 '이러 이러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마음 내 주십시오.' 하고만 가도 됩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꼭 봐야 하고 여러분한테 꼭 목탁을 쳐서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았지도 않아요. 나는 결심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피해나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려가지도 않고 햇바닥을 깔고 죽겠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이룬다면 아예 살지를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살지를 않아도 고만, 살아도 고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쁘다 하는 것은 별이 별 게 다 해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자기를 먼저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돌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림 · 최주현